



LA 중·고등학생들, 대구시교육청 주관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가

- 대구시교육청 주최 국제교류 행사에 LA한국교육원이 선발한 학생 및 인솔 교사 등 총 11명 참가
- 11.17.(일)부터 6박 7일간 한국에서 문화 교류 및 체험 실시

□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미국과 한국 간 청소년 문화 교류 활성화 및 한국 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Parks Jr. High School과 West High School에서 총 11명을 선발하여 대구시교육청 주관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 행사는 11월 17일(토)부터 11월 23일(토)까지 총 6박 7일간 진행되며, 미국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호주를 포함하여 총 36명의 학생 및 교사들이 참가합니다. 서울, 대구, 경주를 돌아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 현대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특히 19일(화) ‘글로벌 교육수도의 대구의 날’ 행사에 모든 학생들이 노래, 춤 등 특별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적 교류 및 친교를 다질 예정입니다.

○ Parks Jr. High School은 2020년, West High School은 2000년에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LA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팀 신청서 및 공연 영상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참가 학생들을 선발 하였습니다.

□ West High School의 Lyrik(12th) 학생은 “한국에 가게 되어 너무 신나고 대구에서 하는 춤 공연도 긴장되지만 설렌다” 고 말하며 “한국의 일상생활 및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인솔자로 참가한 West High School의 Karyn Lee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동영상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도 뜻깊었다” 고 말하며 “기회를 주신 대구시교육청과 LA한국교육원에 정말 감사하고, 학생들과 한국 문화를 매일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대된다” 고 전했습니다.
- 강전훈 교육원장은 “대구는 웅장한 자연경관 그리고 서문시장, 근대 문화 골목 등으로 대표되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매력을 가진 도시이다. 이러한 특색 있는 환경은 학생들이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사진 1부. 끝.

※ 관련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213-386-3112) Homepage: www.kecla.org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213-386-3112)
	담당자	

사진: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교사

